

HDC아이파크를 'D7푸드시네마' 1주년 감사 이벤트

서울 용산 HDC아이파크몰이 14일까지 'D7푸드시네마' 오픈 1주년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D7푸드시네마' 입점 브랜드의 대표 메뉴를 20% 할인 특가로 만날 수 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D7푸드시네마'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준다.

정정욱 기자



게임 | 넥슨·넷마블·엔씨, 올해도 신작·신사업 러시

'3N', 연 매출 10조 시대 열까

엔씨, 기대작 '블소2' 오늘 사전예약 새로운 IP 발굴·글로벌 공략도 적극 넥슨은 '커즈펠' '코노스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작 공개 예정 넷마블도 '제2의나라' 등 신작 준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른바 게임업계 '3N'이 올해도 기대작 출시와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선다.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2'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모바일', 넷마블의 '제2의나라'(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른바 게임업계 '3N'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한다. 3N은 지난해 매출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작들의 성과가 주요했다. 3N은 올해 기대작 출시 외에도 해외 시장 공략과 신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3N이 새로운 도전으로 연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엔씨는 지난해 처음 매출 2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 매출 2조4162억 원, 영업이익 8248억 원으로 2019년보다 각각 42%, 72%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말 내놓은 '리니지2M' 등 '리니지' 시리즈의 흥행 덕분이다. 엔씨는 올해 리니지 외 새 지적재산권(IP)과 신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중 '블레이드앤소울(블소2)'와 '트릭스터M'을 출시한다. 인기

PC게임 '블소'의 정식 후속작으로 리니지 시리즈를 이을 기대작으로 꼽히는 '블소2'의 경우 9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엔씨는 '프로야구H3'와 '팡야M' 등 스포츠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리니지2M의 해외 서비스에도 나선다. 엔씨는 또 지난달 케이팝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

하고, 인공지능(AI)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법인에도 참여하는 등 게임 외 새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9일 실적을 발표하는 넥슨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2조5323억 원으로, 처음 연간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나라:연'과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이 흥행한 결과

다. 넥슨은 올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PC게임 '커즈펠', 모바일게임 '코노스바 모바일', 콘솔(가정용게임기)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던전앤파이터모바일'의 중국 출시도 기대감이 높다.

넥슨은 최근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5000만 원(개발직군)으로 높이는 등 우수 인재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AI 등 신규 사업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실적발표 예정인 넷마블은 지난해 약 2조5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개의 대죄', 'A3' 등이 좋은 성과를 낸 결과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세븐나이츠2'도 인기를 끌고 있다. 넷마블은 특히 해외에서의 성과가 좋다. 엠에이가 선정한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52개 퍼블리셔 중 8위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은 이달 말 구로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한다. 올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제2의 나라', '마블 퓨처 레볼루션' 등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사옥에 함께 입주하는 코웨이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차그룹, "애플카' 개발 안 한다" 공시 통해 협력설 부인...기아 14.98% 추가 하락

비밀 유지협약을 중시하는 애플이 현대차의 애플 사범 거론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현대차그룹의 주도권 확보 전략일까.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력설로 요동치던 현대차그룹주가 8일 일제히 급락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8일 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며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애플카 생산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아차는 전 거래일보다 1만5200원(14.98%) 하락한 8만6300원에, 현대차는 1만5500원(6.21%) 하락한 23만4000원에, 현대모비스는 3만500원(8.65%)내린 32만2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아직 실체도 없는 애플카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을 모두 쥐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한 차례 세계 흔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대차와 기아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요청을 받고 있다. 애플과의 협상이 잠시 중단된 것인지만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P와 전기차 관련 기술은 애플이 탐낼 만큼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애플카가 실체를 드러내려면 아직 몇 년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협력설을 일단락 지은 현대차그룹 역시 향후 애플, 혹은 유사한 기업과 어떤 수준의 자율주행전기차 개발 협력을 해야 하며 득실은 무엇인지 더욱 세밀하게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위메프, 새 대표에 하승 부사장 선임



위메프가 신입 대표이사 사장에 하승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시작한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신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2015년 위메프에 합류한 하 승임 대표는 마케팅과 사업분석, 직매입, 물류업무 등을 총괄했다. 2017년부터 전략사업부문을 맡아 플랫폼 및 신사업 개발, 제휴사업 등을 주도했다. 앞으로 기술 기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위메프의 재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하 승임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철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년 동안 위메프를 이끈 박은상 전 대표는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명근 기자

'차명회사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2016,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제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했다.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친족이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자료 누락을 통해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누락된 계열사로 자산 규모가 9조7000억 원에 머물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10조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석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종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욱 010-6258-3510 / 오영숙 010-9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보정 010-6416-1888 ● 이진 허찬석 010-4707-2659
● 관서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태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충북 충주동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